



“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KOREA RESOURCE-RECYCLING ENERGY MUTUAL-AID ASSOCIATION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Korea Industrial Waste Landfills Association

수 신 전 조합원사 및 회원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

참 조 시설관리 담당

제 목 소방청, 폐기물 관련시설 합동 실태조사 추진 알림(긴급)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청에서는 3.29(월)~4.29(목)까지 폐기물 관련시설 화재 근절 및 예방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폐기물 관련시설에 대해 반입 폐기물 종류 및 현황, 보관방법(지정폐기물 및 위험물취급시설은 각별한 주의 필요), 화재 안전시설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임을 불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사에서는 합동 실태조사 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무엇보다 소각·매립업체의 화재 사고는 산업계의 폐기물 적정 처리에도 영향을 끼쳐 지역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바, 국가기반시설로서의 책임 의식을 갖고 화재 예방 및 근절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합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 “폐기물 처리업체” 통칭으로 인한 소각·매립업체의 오해와 불신 발생 방지를 위해 소방청에 업종을 정확히 구분하여 발표하여 줄 것을 불임과 같이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폐기물 관련시설 합동 점검 결과 업종 구분 발표 재요청 1부.
 2. 「소방청, 폐기물 관련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한다」 보도자료 1부. 끝.

 **한국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한국 산업 폐기물 매립 협회 장**



담 당 김 성 찬 대외협력팀장 오 은 석 상 무 장 기 석 부이사장 김 상 배 이 사 장 이 민 석
 회 장 김 영 석

협조자
 시행 한공조 2021 - 112호 (2021. 4. 6) 접수
 우 04508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50-1(만리동1가, SKY1004빌딩) 13층 /www.krema.kr
 전화 02-718-7900 전송 02-718-7171 / krema@krema.kr / 비공개



“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KOREA RESOURCE-RECYCLING ENERGY MUTUAL-AID ASSOCIATION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Korea Industrial Waste Landfills Association

수 신 소방청장

참 조 화재예방과장

제 목 「폐기물 관련시설 합동 점검 결과」 업종 구분 발표 재요청



1. 한공조 2020-340호[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사고 관련 업종 구분 발표 요청 민원 제기, '20.8.25] 관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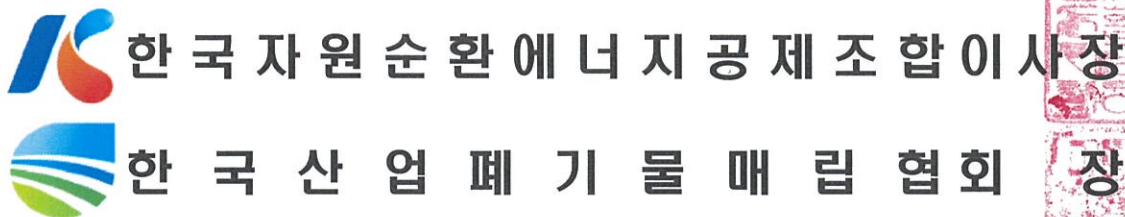
2. 위 호로 기 요청드린 바와 같이 민간 소각·매립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과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의 조합원사 및 회원사는 화재 발생 근절과 예방을 위해 자발적인 시설점검 실시 및 화재 취약성 개선을 통해 사업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청에서 금번 '21.3.29부터 폐기물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합동 실태조사의 결과 발표 시 민간 소각·매립업체에 대한 국민 오해 및 불신 발생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업종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발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 관련시설 업종 구분

폐기물 소각업체	폐기물 매립업체	폐기물 재활용업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반입된 폐기물을 태워서 처분하는 업체	소각 또는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시설을 갖추고 매립하여 처분하는 업체	폐기물을 재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선별 가공하는 업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이용·재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가공하는 업체

- 붙 임 : 1.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사고 관련 업종 구분 발표 요청 민원 제기」 시행 문서 1부.
 2. 「폐기물 업체 사고·화재, 재활용 업체 88% 차지」 보도자료 1부. 끝.



담 당 김 성 찬 대외협력팀장 오 은 석 상 무 장 기 석 부이사장 김 상 배 이 사 장 아 민 척 회 장 김 영 석

협조자
 시행 항공조 2021 - 113호 (2021. 4. 6) 접수
 우 04508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50-1(만리동1가, SKY1004빌딩) 13층 /www.krema.kr
 전화 02-718-7900 전송 02-718-7171 / krema@krema.kr / 비공개



“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KOREA RESOURCE-RECYCLING ENERGY MUTUAL-AID ASSOCIATION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Korea Industrial Waste Landfills Association

수 신 소방청장

참 조

제 목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사고 관련 업종 구분 발표 요청 민원 제기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 발생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 및 사고의 원인자 대부분이 재활용 업체임에도 정부 발표 및 언론보도 시 “폐기물 처리업체”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법」상 폐기물 처리업종은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으로 구분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 구분이 정확히 되고 있지 않아 민간 소각·매립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과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의 조합원사 및 회원사가 해당 사고의 원인자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우리조합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 및 사고에 대한 업종 구분을 요청하고자 언론 보도자료(‘13.1~’20.6)를 근거로 폐기물 처리업체 사고 현황을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총 180건의 화재 및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안전사고 등이 158건으로 전체 사고 건수의 약 88%를 차지하였습니다.

4. 특히, 폐기물 재활용업체와 달리 폐기물 소각·매립업체는 사업장 내 전 구역에 CCTV 설치 및 물대포 등의 소방방재 시설 설치, 관리 인력 배치를 통해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청에서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사고 발생 발표 시 아래와 같이 정확히 업종을 구분하여 발표해 주실 것을 민원 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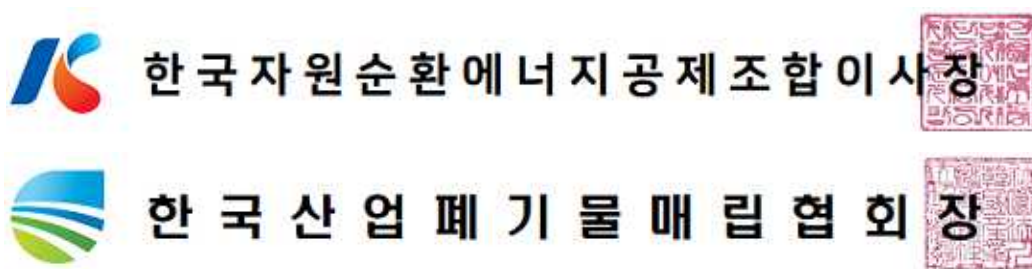
■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사고 발생 시 정확한 발표 내용

기존 발표	정확한 발표			
업종 구분없이 “폐기물처리업체” 로 통칭	폐기물 소각업체	폐기물 매립업체	폐기물 재활용업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반입된 폐기물을 태워서 처분하는 업체	소각 또는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시설을 갖추고 매립하여 처분하는 업체	폐기물을 재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선별 가공하는 업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이용·재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가공하는 업체

■ 최근 보도된 폐기물 업체 화재 보도 정정 예시

예 시
(소방청 발표) 경기 화성시 서산면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정확한 발표) 경기 화성시 서산면의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소방청 발표) 부산 기장군 정관면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이 나 2시간 40여분만에 진화됐다. (정확한 발표) 부산 기장군 정관면의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에서 불이 나 2시간 40여분만에 진화됐다

붙 임 : 소방청·정부 발표 폐기물 처리업체 사고 발생 현황 및 업종별 사업장 운영 실태 1부. 끝



담 당 김 성 찬 대외협력팀장 오 은 석 상 무 장 기 석 부이사장 김 상 배 이 사 장 박 무 응
 협조자
 시행 한공조 2020 - 340호 (2020. 8. 25.) 접수
 우 04508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50-1(만리동1가, SKY1004빌딩) 13층 / www.krema.kr
 전화 02-718-7900 전송 02-718-7171 / krema@krema.kr / 비공개

소방청 · 정부 발표 폐기물 처리업체 사고 발생 현황 및 업종별 사업장 운영 실태

1 현황

(단위 : 건)

구분	총계	화재	안전사고	폭발	붕괴
계	180건(100%)	156건(86.7%)	17건(9.4%)	5건(2.8%)	2건(1.1%)
소각	16건(8.9%)	14건(9%)	1건(5.9%)	1건(20%)	-건(-%)
매립	5건(2.8%)	3건(1.9%)	1건(5.9%)	-건(-%)	1건(50%)
재활용	158건(87.8%)	138건(88.5%)	15건(88.2%)	4건(20%)	1건(50%)
기타	1(0.6%)	1(0.6%)	-	-	-

※ 출처 : 인터넷 보도기사,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2 시설 현황

가. 민간 소각업체 전경



나. 민간 매립업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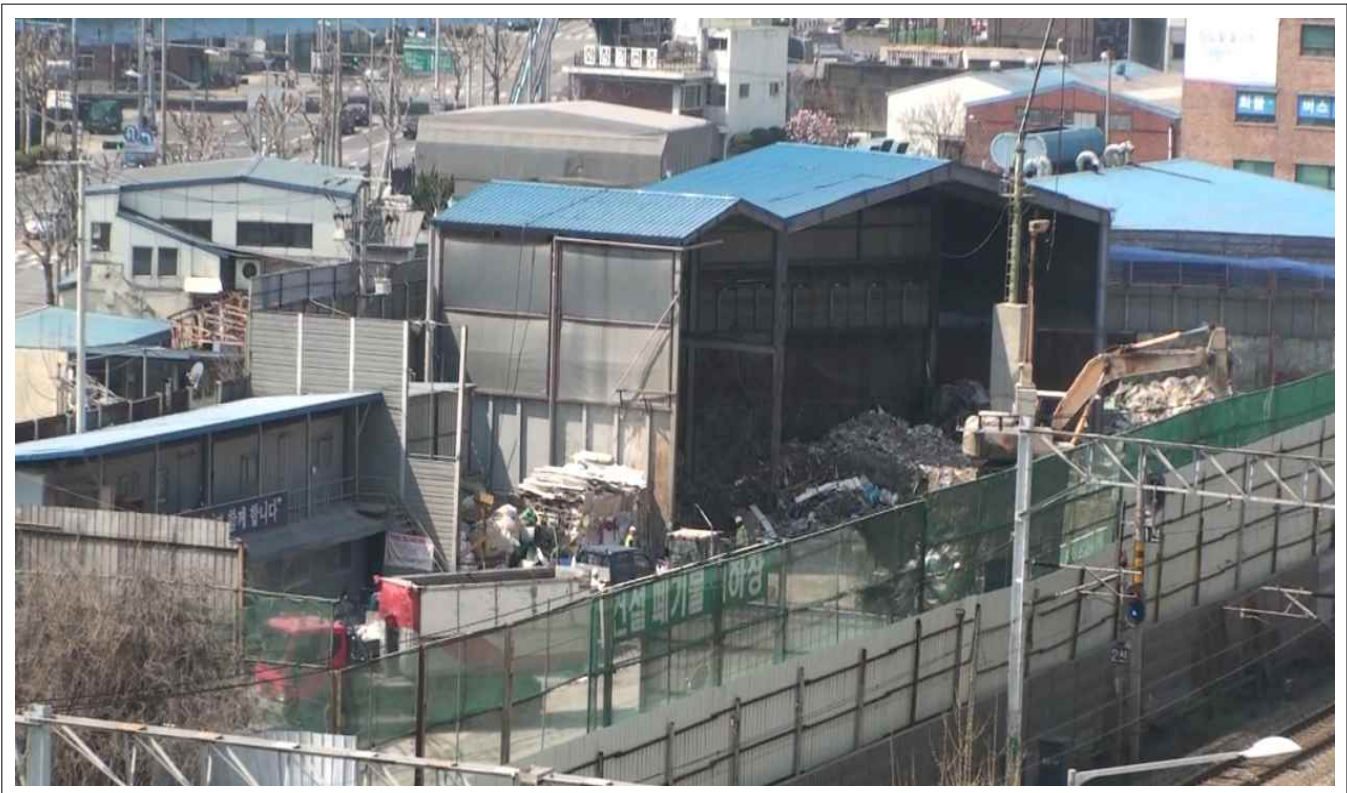
다. 민간 소각·매립 업체 CCTV 및 화재 진압 시설



라. 폐기물 재활용업체 사진



마.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사진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대외협력팀	오은석 팀장 / 김성찬 주임
		02-718-7900(代)
배포일시	2020. 9. 3. / 총 5매	

폐기물 업체 사고·화재, 재활용 업체 88% 차지
 ◇ 폐기물 화재는 막대한 2차 환경오염까지 유발하는 인재(人災)
 ◇ 정부 및 언론은 “폐기물 처리업체”로 일관되게 발표
 ◇ 소각·매립업체로 오인 문의 빗발쳐 “억울함 호소”
사고업체 취급받는 소각·매립 업계 정확한 표현 요구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화재가 대부분 재활용 업체에서 발생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원인자가 소각·매립업체로 오인 받고 있어 화재 및 사고 발생에 대한 정부 및 언론 발표 시 정확한 업종 구분 보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폐기물 처리업체 업종별 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총계	화재	안전사고	폭발	붕괴
계	180건(100%)	156건(86.7%)	17건(9.4%)	5건(2.8%)	2건(1.1%)
소각업	16건(8.9%)	14건(9%)	1건(5.9%)	1건(20%)	-건(-%)
매립업	5건(2.8%)	3건(1.9%)	1건(5.9%)	-건(-%)	1건(50%)
재활용업	158건(87.8%)	138건(88.5%)	15건(88.2%)	4건(20%)	1건(50%)
기타	1(0.6%)	1(0.6%)	-	-	-

※ 조사 출처 : 인터넷 보도기사 (’13.01 ~ ’20.07.)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박무웅, 이하 “에너지공제조합”)과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회장 이민석, 이하 “매립협회”)는 2013년도 1월부터 2020년도 7월까지 「폐기물처리업체 사고 발생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총 180건의 화재, 안전사고, 폭발, 붕괴 사고 등이 발생했고, 이 중 88% 달하는 158건이 재활용 업체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총 156건의 화재 사고 중 138건이 재활용 업체에서 발생해 88%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활용 업체 보관 폐기물 화재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해 에너지공제조합과 매립협회는 폐기물 소각·매립 업체는 법적 의무사항인 사업장 내 CCTV 설치와 자체 화재 감시로 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오히려 국민의 환경 보호권과 방치 폐기물 및 재난·재해 폐기물 처리를 위해 공익성을 대폭 강화코자 정관에 공익 사업을 명문화하는 등 사업장 안전관리와 방치 폐기물 신속 처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폐기물 화재의 주요 원인자 취급으로 매도당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양 단체는 향후 정부와 언론에서 “폐기물 처리업체” 사고 관련 내용 발표 시 반드시 해당 폐기물 업체의 업종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발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부분의 폐기물 처리업체 사고가 재활용 업체에서 발생하는 상황이고, 특히 화재 사고의 경우 정부와 언론에서 정확히 업종 분류를 해준다면 국민으로부터 민간 소각·매립업체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 받는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양 단체가 그간 언론에 보도된 폐기물 처리업체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업체 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활용 업체의 화재 원인은 첫째, 관리자 부재로 인한 화재, 둘째, 폐기물 반입 후 수요처 부족 및 처리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인한 고의적 화재, 셋째, 장기간 적치된 폐기물에서 축열로 인한 자연발화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이와 반대로 민간 소각업체는 24시간 상주 인력을 배치해 소각시설을 가동하고 있고, 법적으로 CCTV 및 화재 진압 장비가 설치되어 화재 및 사고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해 재활용 업체 대비 화재 및 사고 비율이 현격히 낮다는 입장이다.



◆ 소각·매립업체 사업장 내 소화전 및 물대포 설치



◆ 소각·매립 업체 현장 관리 CCTV 및 화재 진압 훈련

폐기물 처리업체의 화재 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성시의회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며 주민 요구사항 청취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도 하였다.

재활용 폐기물이 쌓인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면 유해물질 배출로 심각한 환경적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폐기물의 경우 방치 등 관리 소홀도 문제지만 화재 발생 시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대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일어나고 2차 오염 발생이라는 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재활용 업체의 사업장 관리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박무웅 이사장은 “폐기물로 인한 사고 및 화재 발생이 대부분 재활용 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언론에서는 사고 업체가 재활용 업체인지 소각·매립 업체인지 구분 없이 “폐기물 처리업체”로만 발표하고 있다”며 “폐기물 처리업체라는 인식에는 소각장과 매립장을 먼저 떠올리는 국민들의 의식 때문에 소각·매립업체가 원인자 취급을 받으며 국민들로부터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향후 소방청과 언론에서 폐기물 처리업체 사고 및 화재 상황 발표 및 보도 시 재활용 업체인지 소각·매립 업체인지 업종을 정확히 구분하여 알림으로써 자원순환 시대에 양질의 순환 에너지 생산 기업과 우수한 재활용 업체들이 “도매금”으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사고 발생 시 정확한 발표 내용 >

기존 발표	정확한 발표			
업종 구분없이 “폐기물 처리업체”로 통칭	“폐기물 소각업체”	“폐기물 매립업체”	“폐기물 재활용 업체”	“건설폐기물 재활용 업체”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빈입된 폐기물을 태워서 처분하는 업체	소각 또는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시설을 갖추고 매립하여 처분하는 업체	폐기물을 재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선별 가공하는 업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이용·재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가공하는 업체

< 최근 보도된 폐기물 업체 화재 보도 정정 예시 >

예 시	
(소방청 발표)	경기 화성시 서산면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정확한 발표)	경기 화성시 서산면의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소방청 발표)	인천시 서구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정확한 발표)	인천시 서구에 있는 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보도 자료	
---	-------	---

배포일시	2021.3.30.(화) 08:00	보도시점	2021.3.31.(수) 조간부터 [온라인 매체 3.30.(화) 12:00부터]
담당과장	화재예방과장 이동원	연락처	044-205-7440
담당	소방경 정태식	연락처	044-205-7442
쪽수/붙임	2쪽/있음	대변인실	044-205-7017

소방청, 폐기물 관련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한다
 - 화재피해 및 탄소배출 등 2차 피해 최소화 -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관련시설*의 화재를 예방함과 아울러 탄소배출을 저감 하기 위한 화재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재활용 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

- 최근 5년간(2016~2020년) 폐기물 관련시설 화재는 510건이 발생해 28명(사망1, 부상27)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648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플라스틱 폐용기를 분쇄하던 중 화재가 발생(유증기 폭발로 추정)해 작업자가 사망하였고, 지난 13일에는 서울의 한 자원순환센터 쓰레기 집하장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로 2억1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폐기물 화재는 진화에 많은 인력·장비·시간*이 필요하고,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해 위험성 등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활동을 하게 되므로 소방대원이 폭발이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성주 폐기물 야적장(2019년 3월), 군산 폐기물창고(2020년 7월)의 경우 완진까지 7일 소요

○ 또한 폐기물 화재는 1차 피해보다 오염물질 발생(대기오염, 소화수 등)의 2차 피해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주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

□ 이에 소방청은 폐기물 관련시설의 화재근절과 조기진화를 위한 예방 및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우선 전국의 폐기물 관련시설 3,910곳*에 대해 3월29일부터 4월 29일까지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1,171, 폐기물 처분시설 2,348, 폐기물 감량화시설 391

○ 중점 조사사항으로 △폐기물의 종류 등 현황 △보관방법 △안전 시설 △소방활동 정보 등이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폐기물 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진압 대응전술,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현장대응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환경부와 협력하고 화재초기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여 조기에 폐기물 화재를 진압하는 등 폐기물 관련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화재예방과 정태식 (☎ 044-205-744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현황

구분	화재(건)	인명피해(명)			피해액(천원)	소실면적(m²)
		계	사망	부상		
합계	510	28	1	27	64,816,041	83,959.81
2016	74	5	0	5	8,135,461	17,363.64
2017	95	4	0	4	5,441,691	14,108.43
2018	106	7	0	7	29,322,949	13,041.7
2019	114	2	0	2	12,541,811	10,959.09
2020	121	10	1	9	9,374,129	28,486.95

□ 화재원인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510	74	95	106	114	121
전기적 요인	63	11	12	11	15	14
기계적 요인	68	9	13	15	15	16
화학적 요인	139	18	31	30	24	36
자연적인 요인	12	1	3	3	2	3
부주의	128	14	18	24	38	34
가스누출(폭발)	8	1	0	4	1	2
미상	79	19	15	17	15	13
기타	13	1	3	2	4	3

□ 발화장소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510	74	95	106	114	121
설비,저장	238	32	44	51	50	61
공정시설	51	3	11	15	11	11
생활공간	12	2	3	1	3	3
구조	30	3	4	4	11	8
기능	38	4	10	8	9	7
출구	4	1	2	0	1	0
미상	22	8	6	2	5	1
기타	115	21	15	25	24	30

